

제15편 - 제3신앙촌시대(제2부)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58회)

제15편

제3신앙촌 시대(제2부)

1. 인류의 구세주 예수?

2. 예수는 가짜구세주 마귀다

- 1) 자유율법대로 심판을 받는다
- 2) 돌연 다 결혼을 하라고 명함
- 3) 승리제단(勝利祭壇)이라는 명칭을 발표함
- 4) 예수는 가짜구세주요 대(大)마귀새끼다

제3신앙촌시대(제2부)

1. 인류의 구세주 예수?

영모님은 예수를 업고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그 속에서 구세주를 찾아 키워 세우시려는 것이 그분의 사명임은 이미 여러번 설명한 바 있다. 영모님은 예수에 대해서 지극정성을 다하여 증거하였다. 기독교의 진수(眞髓)는 십자가, 보혈, 부활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죄 씻음 받아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교하면서 눈물을 펄펄 쏟으시니 그 설교말씀을 듣는 모든 교인들은 같이 통곡을 하면서 사자후를 터뜨리는 영모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다. 찬송도 피의 찬송만 골라서 불렀다. 성경 66권 중에 예수의 피가 없으면 다 껌떼기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예수를 증거하였다.

그러나 전국의 기독교인들이 물밀듯이 몰려들었고 영모님을 이단이라고 결의한 목사들도 어쩌다가 한번 영모님의 설교를 듣고는 감동되어 기독교 역사 이래 예수님을 이처럼 감동적으로 증거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하면서 돌아가곤 하였다. 그야말로 영모님은 예수의 충실한 종이 틀림없어 보였다. 동방의인 감람나무 승리자도 예

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하면서 당신은 예수의 충실한 종이었고 하였다. 영모님이 축복한 생수가 종종 피로 변한 적이 있는데 이를 예수가 흘린 피라고 하였다. 또 사귀들린 자에게 생수를 먹이면 '피! 피!' 하면서 진저리를 치는데 이도 예수의 흘린 피 때문이라고 하였다. 영모님은 피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피는 곧 생명이다(창9:4)"라고 하시면서 예수의 흘린 피는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인 피를 다 쏟아주었다고 하였다.

#앞으로 이 피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겠으나 구원의 도를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피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에 절대 도달할 수가 없게 된다. 피는 생명이다(창9:4).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피에 있다. 이 피만 맑힐 수 있다면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 예수의 피로써 어쩌구 하는 것 같은 것은 절대 아니다. 구원의 영생학인 피의 원리를 설명할 때를 기대를 걸고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

2. 예수는 가짜구세주요 마귀다

1) 자유율법대로 심판을 받는다

"너희는 말에나 행실에나 장차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줄 알고 행하라(약 2:12)"

전도관에서는 미혼자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원리로 되어 있었다.



청량리 소재 5층양전도관 전경

영모님이 공식적인 말씀으로 결혼을 금한 적은 없지만 모두가 이심전심으로 결혼하면 안 된다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였다. 남녀들은 오직 다시 오시는 재림주인 예수를 맞아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이 목표였다(마25장 참조). 영모님은 눈길로나 마음로나 범죄치 말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셨다. 유적으로 짓는 죄는 모세율법에 저촉받아 심판받는 것이지만, 자유율법의 법은 마음으로 짓는 죄를 심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눈길로나 마음로나 범죄하면 심판받아 구원받을 수가 없고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면서 지금은 자유율법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자유율법시대라고 하였다. 또 영모님은 그 마음으로 짓는 죄 중에서도 음란죄는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음란죄를 지은 것이 된다고 하였다. 눈길로나 마음로나

범죄치 않고 이성과 더불어 결혼도 하지 않고, 마음과 몸을 정결케 하여 다시 오시는 신랑되시는 예수를 맞이하여 천년성의 왕이 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다. 모든 교인들은 매일 영모님이 축복한 생수로 눈을 하루에도 몇 번씩 닦았다. 그리고 생수를 마셨다. 부지 중에서도 죄를 지은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그리하곤 하였다. 이성에 대해서는 눈을 똑바로 하여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했고, 마음으로는 음란한 정욕이 들어오면 사생결단을 하여 극복하여 물리치려고 하였다. 어떻게 하면 자유율법에 걸리는 일이 없어야 했고, 또 그야말로 신랑되는 재림주를 맞이하여 천년성의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이다.

2) 돌연 결혼을 하라고 명함

위에서 설명을 한 것처럼 이성간에

는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애를 썼다. 더욱이 이성 간에 좋아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고 생각을 해본 일도 없었다. 어쩌다가 마음으로 끌려 이성을 눈으로 바라보았다 싶으면 그 날은 몇 십 번씩 생수로 눈을 닦고 또 닦았다.

1973년이였다. 영모님의 부인되는 박모 사모님이 돌연 세상을 떠나셨다. 전날까지도 건강하던 분이였기 때문에 다들 큰 충격을 받았다. 그후 1973년에 영모님은 가장신앙촌 경리부에서 일하는 최모 씨를 아내로 맞이한다고 발표를 하신다. 다들 또 한번 깜짝 놀랐다.

그후 1973년 6월경 필자에게 가장신앙촌에서 연락이 왔다. 이번 일요일 서울 5층양전도관으로 와서 영모님을 접견하라는 긴급연락이었다. 언제가 됐던 영모님을 뵙는다는 것은 긴장이 되는 일이었다. 영모님은 칭찬을 하시는 것은 거의 없으시고 만나보면 언제나 엄한 모습을 하시어 필자도 무슨 일인가 하고 생각을 하면서 긴장 속에 일요일을 기다렸다. 약속된 일요일이 되었다. 필자는 아침일찍 청량리 쪽에 있는 5층양전도관으로 갔다. 영모님이 일요일 서울 오실 때면 제일 먼저 5층양전도관에서 예배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5층양으로 K관장을 부르신 것이다. K관장이 있는 제단은 맨 마지막에 영모님이 단에서 서시기 때문에 일찌감치 5층양에 불러서 말씀을 하실려고 하신 것이다.

영모님의 일요일 서울제단 순회에 배 일정을 잠깐 소개하면 다음과 같

다. 제일 먼저 청량리의 5층양에 서시고 다음으로 미아리 2층양에 서신다. 그리고 신실동의 3층양에 서시고 그리고 왕십리의 9층양에 서신다. 그리고 서대문의 7층양에 서시고 다음에 원효로의 1층양전도관에 서시고 바로 한강을 건너서 신길동에 있는 4층양에 서시고, 맨 나중에 노량진에 있는 8층양에 서시는 것이다.

어떻든 그날 필자는 청량리 5층양에 일찍 가서 영모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영모님이 도착하셨다. 영모님을 접견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다. 천부장 홍영표 권사, 부인 연합회장인 장홍자 권사 등 약 20여명이 영모님을 뵙기 위하여 모여 있었다. 그런데 영모님이 차에서 내리시더니 그 많은 사람들은 쳐다보시지도 않으시고 필자를 보시더니 "따라 올라와!" 하시는 것이다. 필자는 영모님 뒤를 따라 2층에 있는 영모님실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랬더니 영모님은 "이리 와서 앉아!" 하시면서 영모님 앞 소파를 가리킨다. 머뭇거리다가 용기를 내서 영모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영모님은 음료수를 몇 모금 마시더니 "내가 증매를 서려고 해!"라고 하신다. 필자는 귀를 의심하였다. 순간 영모님이 필자의 마음을 떠 보실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결혼을 안 하기로 이미 결심을 하였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랬더니 영모님은 "아니야 이젠 결혼을 해야 돼!"라고 하셨다.*

격암유록 新 해설 제44회

賽六五(二) 새육오

不狀之狗切痛痛歎 불째지구절치통탄

그러나 짓지 못하는 개들, 즉 진리를 말할 줄 모르는 거짓 목자들은 이를 갈며 통탄할지라도 그들의 갈 곳은 이미 지옥 불 구렁텅이로 정해져 있다.

* 참조: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병어리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죽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물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 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며.." - 성경 사 56장 10~11절

三豐之人入於仙境 삼풍지인입어선경 獸從之人穿於火獄 수종지인정어화옥

화우로(火雨露)의 감로해인(甘露海印)을 들고 나온 십승지인(十勝之人) 정도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선경(仙境)에 들어가는데, 짐승 같은 거짓 목자들 따르는 사람들은 이들의 함정에 빠져 지옥 불을 면할 길이 없겠네.

善行之人歲歲彈琴 선행지인세세탄금 惡行之人年年彈斝 악행지인년년탄항

착한 일을 행한 사람은 세세토록 거문고를 타면서 노래를 즐길 것이며, 반면에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매년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聖山(성산)은 인천 부평구에 있는 계양산이요 聖地(성지)는 부천 소사구 노고산 기슭에 있는 밀실이다

* 참조: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주릴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갈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들(거짓 목자들 따르는 사람들은)은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우므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들은 마음이 슬프므로 울며 심령이 상하므로 통곡할 것이며.." - 성경 사 65장 13~14절

聖山聖地仁富之성산성지인부지출 有知者生無知者死 유지자생무지자사

성산은 인천 부평구에 있는 계양산이요 성지는 부천 소사구에 있는 노고산 기슭에 있는 밀실인데, 계양산 꼭대기의 우물은 정도령 조희성님의 태몽에 등장하고 노고산의 밀실은 정도령이 연단 받고 구세진인으로 출현하는 장소로다. 이를 아는 사람은 살고 모르는 자는 죽을 것이로다.

* ① 조희성님의 태몽에 얽힌 계양산(桂陽山); 성모님이 꿈에 계양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산봉우리가 셋이 있고 가운데 큰 봉우리의 정상에 우물이 하나 있었다. 그 곳의 맑은 물이 근원이 되어 옥수(玉水)같이 깨끗한 물이 끊임없이 아래로 흐르고 있었다. 흐르는 물을 보니 마음이 흡족하고 기분이 매우 좋았다. 그곳에는 평평하고 넓적하게 생긴 바위가 하나 있고 그 위에 깨끗한 물동이와 바가지가 놓여 있어서, 이 맑고 깨끗한 수정 같은 물을 바가지로 떠서 물동이에 가득 채워 놓으니, 어디선지 하얀 비둘기가 날아와 물동이 위

에 앉아, 그대로 물동이를 이고 김포 감정리(坎井里) 집으로 내려왔다. 며칠 후에 다시 그 산을 올라가니 낮선 청년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며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여 따라갔더니 산 정상에 도달하였다. 그때 청년이 검지로 가리키며 저 쪽을 보라고 하여 쳐다보니, 그 순간 갑자기 오색찬란한 빛과 구름이 온 산을 뒤덮더니 흰 옷을 입은 선녀들 30여 명이 하늘에서 사분히 내려왔다. 그 선녀들이 성모님 주위를 에워싼 후 빙빙 돌더니 일제히 성모님을 향해 큰절을 하였다. 깜짝 놀라 '어떤 연고로 그러시느냐?' 고 하니가 선녀들 중 한 사람이 말하기 "당신의 태중에 계신 분은 인류 중에서 가장 크신 분이네. 그분은 온 인류를 위하여 일할 위대하신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중에 계신 그분을 향해 예를 드리는 것입니다. 옥체를 잘 보존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② 성산성지(聖山聖地); 격암유록 농궁가에 "聖山聖地牛鳴地(성산성지우명지) 萬世不變安心處(만세불변안심처)"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해석하면 성산(聖山)·성지(聖地)는 소(牛)울음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이며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안심처라는 뜻이다. 그리고 격암유록 세론시에는 "三神山 牛鳴地(삼신산하우명지) 是 삼신(三神;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활(役活)을 하는 곳으로 소래산과 노고산 사이에 있는 밀실이며, 그 밀실이 십승(十勝; 이기신 하나님)을 배출하는 성산성지(聖山聖地)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더군다나 격암유록 초창에는 "三神山 牛鳴地(삼신산하우명지) 桂樹範朴是吉地(계수범박시길지)"라고 하여 삼신산 아

래 소 울음소리 나는 곳, 계수동과 범박동이 길한 땅이라고 하는데, 십승진인(十勝眞人) 조희성님께서 연단 받은 밀실이 계수(桂樹) 3리가 되면서 그 절반은 범박동(範朴洞)이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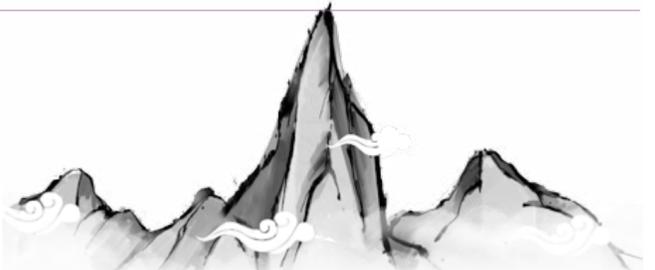
嗟呼三呼三災不遠日 차호삼호삼재불원일 覺者其間幾何人 각자기간기하인

오호라! 슬프고 슬프고 슬프도다! 삼재(三災)가 멀지 않는 날에 다가올 터인데, 이를 깨달은 자들이 그간에 몇 명이며 어떤 사람인가?

美哉山中兮哀哭之聲不聽之惡死 미재산중헤애곡지성영불청지악사 幼兒無不滿壽落胎之死 유아무불만수낙태지사 百歲之上壽人神屋別天地 백세之上壽人神屋別天地 백세지상수목인신옥별천지

아름답도다! 신선들이 사는 세계여! 애곡하는 소리를 영원히 듣지 못하고 악과 죽음이 없는 세계요, 유아가 수명을 못다 채우는 일이 없고 낙태하여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니 누구나 나무의 수한과 같이 백세를 넘길 것이라. 참으로 신인합일(神人合一)이 된 자가 거주하는 곳은 별천지로다.

* 참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으리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 받은 자이리라" - 성경 사 65장 20절



海人役使萬事如意亨通

海人역사만사여의형통

風塵惡疾雲中去 풍구악질은중거

雨洗冤魂海外消 우세원혼해외소

落齒神化復逢生 낙치신화부달생

이러한 별천지란 인간세상이 아닌 신선들이 사는 무릉선경(武陵仙境)인데, 옛 복숭아밭이 있던 땅이로다. 사람의 수명은 마치 계수나무와 같이 영원히 쇠함이 없고, 흰머리가 훌쩍이 면하여 검어지고 빠졌던 이빨이 신(神)의 조화로 다시 돌아난다.

* 참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 성경 사 65장 22절* 吉屋照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충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홈페이지 www.victor.or.kr **홈페이지** www.victor.or.kr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